



5면

전주 남부시장, 백년시장 육성 탄력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음 10월 22일) 제3877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상하이, 미래 협력 새 장 열다

도, 우호교류 20주년 맞아
상하이 부시장 등과 면담
경제·청년 등 아우르는
다방면 실질협력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중국 상하이와 우호 교류 20주년을 맞아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20년을 함께 설계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10일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12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상하이 부시장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2005년 전북과 상하이가 우호교류도시 관계를 체결한 지 20주년을 기념해 추진된 것으로, 그동안 정제됐던 교류를 재정비하고 향후 20년을 겨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대표단은 방문 첫날인 10일 세동 상하이시 부시장과 만나 지역 현안과 향후 교류 방향을 교환했다. 이어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상하이시 교류 20주년 기념식'에서 양 지역 관계 회복과 협력 강화의 의지를 확인했다.

만찬에서는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이자 대한민국 국기(國技)인 태권도와 중국의 국기인 우수 합동 공연이 펼쳐져 양 지역의 공동된 문화와 교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전북 비법



중국 상하이와 우호 교류 20주년을 맞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2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10일 세동 상하이 부시장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밥 퍼포먼스를 통해 다양한 문화 요소의 조화와 협력의 의미를 담아내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도 얻었다.

기념식에는 상하이 총영사관, 코트라, 상하이저널,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상하이체육대학,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 상하이시인민대외우호협회, 상하이시상무위원회 및 상하이 대외경제무역 사무전시 유한회사 등 양 지역 초청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교류 20주년을 기념했다.

대표단은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하이 국제학교를 방문해 한지 공예

등 전북의 문화 강화를 운영했다. 이는 문화·예술 기반 교류를 넘어 미래 세대 간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우호 기반 조성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

상하이체육대학을 찾아 태권도 공연을 진행한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와 교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양 지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청년 및 스포츠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북연구원과 상하이시 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9일 협력 세미나를 열어 공동 발전 비전과 정책 방향을 공

유했다.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양 지역 주요 정책 및 산업 현안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와 신규 사업 발굴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전북은 정책적 시너지를 확보하고 실행 가능한 교류 모델 구축에 기반을 다졌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금융·혁신의 거점이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도시"라며 "청년·문화 교류뿐 아니라 신산업·물류·교역 등 경제 협력을 폭넓게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10일, 남원시 옛 동충치안센터 건물에서 자활사업장 '청년제과점' 개점식이 열린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유희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됐다

남원 옛 동충치안센터 리모델링... '청년제과점' 개점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10일, 유희 국유재산인 옛 동충치안센터(파출소)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자활사업장 '청년제과점' (용성로 96-3) 개점식을 가졌다.

이번 개점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김영태 시의회 의장, 양수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 등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특히 캠퍼스는 옛 동충치안센터 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1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문을

열 자활근로 사업장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방치되었던 국유건물을 리모델링, 새로운 일자리와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자립을 돕는 지속 가능한 자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양수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유희 공간이 청년 희망의 터전으로 다시 태어난 만큼, 이곳에서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당당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연일 현장방문 및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탐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10일 도내 체육인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전북 도정 전반의 발전 전략을 내발적 성장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 주목

“외부에 의존한 지금의 전북, ‘숲 속 잠자는 백설공주’ 역할”

민주 이원택 의원, 도내 체육인들과 간담회서... “강도 높은 내발적 발상 전환 필요”

을 끌고 있다.

이날 이 의원실과 체육인들에 따르면 “지난 30여년동안 전통적인 방식에 갇혀 구시대적인 발상(외발적)에만 의존한 관계로 전북은 숲속에서 잠자는 백설공주와 같았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제대로된 기업유치는 커녕 실속없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만 가져와 결국 나후 전북을 탈피하지 못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만금 시대가 도래한 지금 외발적보다는 내발적 전환의 계기를 맞았다”며 “내부 역량에 기반한 성장 동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의원이 그동안 향토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전북을 벗어나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옮겨타는 현상마저 나타나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등 지역 소멸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만금 시대를 맞아 도내 기업이 자체 경쟁력을 키워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소기업을 중기업으로, 중기업을 전북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확대 판로 확보 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등을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체육분야 정책도 적극적인

조가 활성화해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며 생태계가 순환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문재인정부 청와대 근무시절 새만금 개발사업에서 지역기업의 참여비율을 40% 반영하도록 개선한 사례가 있다”며 “개발은 하되 지역경제에 부가가치가 남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내발적 성장기반을 갖추어 외부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며 “향후 도정 4년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도민의 창의적 역량이 지역안에서 발휘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